



## 미국, 보험산업 전망 설문조사

채원영 연구원

### 요약

- 미국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보험산업의 위협요인과 목표수익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 보험산업의 위협요인으로는 저금리 지속, 규제 강화, 산업 내 경쟁 심화, 사이버리스크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보험산업 위협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미국 보험회사들의 2016년 목표수익률이 8~10%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미국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2016년 보험업에 영향을 주는 위협요인과 목표수익률에 관한 설문조사<sup>1)</sup> 결과가 발표되었음.

- 이번 설문조사는 223개 회사가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69.1%는 손해보험회사, 24.7%는 생명보험 및 연금보험회사, 4.5%는 건강보험회사, 1.8%는 기타보험회사임.

- 보험산업의 위협요인들로는 저금리 환경 지속, 규제 강화, 산업 내 경쟁 심화, 사이버리스크의 순으로 나타남.

- 저금리 지속으로 보험산업의 투자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음.
  -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2015년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751억 달러를 나타냄.<sup>2)</sup>
  - 손해보험회사의 2015년 투자영업이익도 전년대비 11.2% 감소한 476억 달러를 기록함.<sup>3)</sup>
- 응답자들은 ORSA<sup>4)</sup> 도입과 퇴직연금 자문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fiduciary rule) 도입,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지정 등 자본규제 강화로 규제 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1) A.M. Best(2016. 7. 12), "A.M. Best Spring 2016 Insurance Industry Survey", <http://www.ambest.com/>.

2) A.M. Best(2016. 5. 2), "Year-End 2015 US Life/Annuity Statutory Results Review", <http://www.ambest.com/>.

3) A.M. Best(2016. 5. 4), "U.S. P/C Industry Marks Third Consecutive Underwriting Gain, but Surplus Declines on Investment Results", <http://www.ambest.com/>.

4)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 ORSA 도입 준비 등에 따른 규제준수비용 증가로 2015년 대비 사업비율이 0.5%p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응답비율 약 55%).
- 지난 4월 퇴직연금 자문업자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도입<sup>5)</sup>은 규제비용 증가요인으로 조사됨(응답비율 약 41%)<sup>6)</sup>.
- 생명보험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지정 등 자본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sup>7)</sup>
- 아마존, 구글 등 非보험회사의 손해보험산업 진입을 경쟁 심화요인으로 보고 있음.
  - 시장 신규 진입자 증가와 규모의 경제 실현, 자본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한 M&A 증가 등으로 손해보험산업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이외에 사이버리스크도 보험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30.5%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응답자는 50.6%임.

■ 위에서 언급한 보험산업 위협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미국 보험회사들의 목표수익률이 8~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응답함.

- 2015년 겨울에는 연간 목표수익률이 8~10%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이 26%<sup>8)</sup>였으나, 2016년 봄에는 31%로 증가함.
  - 2015년 생명보험산업 실제 목표수익률은 전년대비 0.7%p 상승한 약 12%를 기록<sup>9)</sup>하였으나,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전년대비 1.1%p 하락한 8.1%를 나타냄.<sup>10)</sup>
- 향후 수익성 악화는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kiri**

5) 2016년 4월 6일 미국 노동부는 401K와 IRA를 권유하는 금융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 개혁안을 도입함. 규제 개혁 이전에는 증권중개인은 “적합성 원칙”을, 투자자문업자는 “신의성실의무”를 각각 따라야 하였음. 규제도입으로 보험산업의 경우, 변액보험이나 EIA(Equity-indexed annuities, 주가지수연계연금), 뮤추얼 펀드 판매사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함.

6) 본 규제 도입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40.2%였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35.3%였음. 또한 본 규정 도입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규제의 복잡성(응답률 56.6%)과 규제도입비용(40.7%)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7) 최원(2016. 6. 13), 「2015년 미국 생명보험산업 동향」, 『Kiri Weekly』, 제388호, <http://www.kiri.or.kr/>.

8) A.M. Best(2016. 3. 24), “A.M. Best Winter 2015/2016 Insurance Industry Survey”, <http://www.ambest.com/>.

9) 이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사망률 상승 등에 따른 연금보험금 지급 감소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며, 저금리로 인한 투자영업이익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음(A.M. Best(2016. 5. 2)).

10) A.M. Best(2016. 5. 4).